

# 意味論의 對象과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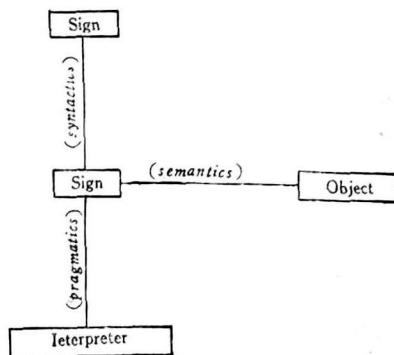
金 韓 坤  
(서 울 大 學 校)

1.0 서 론	6.0 成分分析
2.0 歷史意味論	7.0 Semantic Differential
3.0 共時意味論	8.0 統辭的意味論
3.1 指稱概念	8.1 變換生成意味論
3.2 行動主義	8.2 辭典與 意味資質
4.0 一般意味論	8.3 投 影
5.0 構造意味論	9.0 맷는 말

## 1.0 서 론

「意味論」이란 술어는 이 학문의 대상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유동적인 것과 같이 분명한 定義가 되어 있지 않다. 言語의 연구에는 여러 다른 관점이 있겠는데 그 중 하나로서 「音聲과 意味와의 關聯體系를 究明하는 것」이란 관점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언어연구를 「意味論」이라 일컫는다면, 意味論은 Morris의 記號理論(Semiotics)의 체계에서는 기호(sign)와 대상(object) 간의 指稱관계(referential relationship)에 해당한다고 우선 말할 수 있다.<sup>1</sup>

1.1 Morris의 記號理論의 분야 설정은 제 1, 2 도와 같이 圖解할 수 있다. 먼저 제1도에서 記號(sign)와 解釋者(interpreter 즉 記號의 사용자)와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을 pragmatics; 다음으로 記號와 對象(object 즉 한 記號가 가리키는 것)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semantics; 끝으로 한 記號와 다른 記號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syntactics라 일컫는다. 그러나 記號의 이론은 사실은 그처럼 간단한 관계가 아니다. 제2도와 같이 확장하여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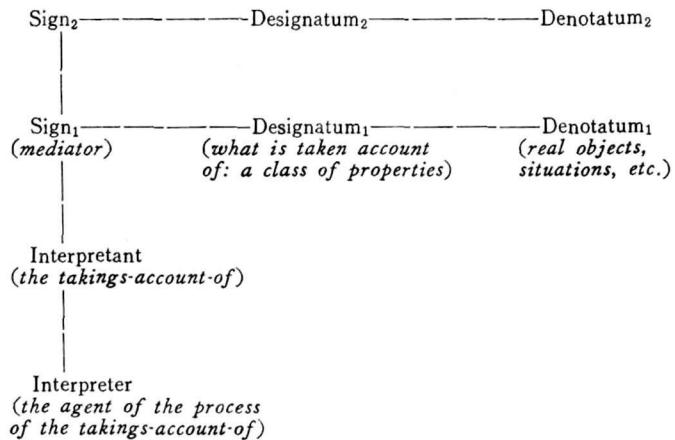


제 1 도

<sup>1</sup> Charles W. Morris,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Sign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Vol. 1, N.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8.

각할 수 있다.

1.2 즉 제2도에서  $sign_1$ 은  $denotatum_1$  (指稱對象)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denotatum_1$ 이 가진 성질의 집합(a class of properties)을 가리킴으로써  $denotatum_1$ 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때  $sign_1$ 이 직접 지칭하는 성질의 집합을  $designatum_1$  (指稱概念)이라



제 2 도

일컫는다. 이것은 제1도로 말하면 記號(sign)와 對象(object)과의 관계에 해당한다. 記號와 指稱對象과의 이러한 관계는 모든 記號에 적용되므로 제2도에서  $sign_2$ 도  $designatum_2$  (指稱概念)을 통하여  $denotatum_2$  (指稱對象)과 관계지어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記號가 이처럼 指稱概念을 통하여 指稱對象과 관계지어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해석자(interpreter)로서 그 記號를 해석하는 행위 (즉 제2도의 interpretant)를 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개개인 해석자의 해석행위(interpretant)에 의존하고 있는 指稱概念(designatum)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變化가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意味論에서 말한 「意味」는 바로 이 指稱概念에 해당하며, 指稱概念——즉 이런 뜻에서의 意味——의 變化를 연구하는 일은 1930년대 초까지 意味論의 주요과제였고 Bréal은 그것을 학문의 한 분야로 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sup>2</sup>

2.0 이처럼 제2도에서 한 記號가 가리키는 指稱概念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것을 歷史意味論(historical semantico)이라 부른다. Bréal은 Sémantique (semantics)란 術語를 命名한 사람으로서 (1) 의미변화 규칙의 발견과 (2) 의미변화의 분류를 意味論의 기본과제로 삼았다. 그는 그 당시까지의 언어연구가 音韻論, 文法, 言語起源論 등에만 몰두했었음을 지적하고 言語가 인간의 의사표시 노력의 결과이므로 인간의 지능과 意志가 가장 주요한

<sup>2</sup> Michel Bréal, *Essai de Sémantique* (1897). Translated by Henry Cust as *Semantics; Studies in the Science of Meaning*,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64.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의 의미변화규칙이나 의미변화형의 분류도 그러한 心理的動機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2.1** Bréal은 의미변화의 규칙으로서 專門化(specialization), 分化(differentiation), 放射(irradiation)의 셋을 들고 있다. 「專門化」란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개 있을 때 그 중 일부 少數만이, 심지어는 단 한개만이 그 뜻을 나타내는데 쓰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佛語의例를 들면 Latin에서 물려 받았던 비교급 *graignor*, *forçor*, *hauçor*, *juvenor*, *gencior*나 최상급인 *pesme*, *proisme* 등이 *plus*란 단 한개의 낱말로 대치된 예가 있다. 다음으로 「分化」란 同義語였던 낱말들이 각기 뜻이 特殊化하여 分別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령 佛語 명사 *sentiment*에서는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동사에서는 *sentir*(to feel)와 *penser*(to think)의 구별이 되며 형용사에서는 또 달리 *sensible* (intelligent, reasonable)이 되는 예가 있다. 세째로 「放射」는 어떤 語形이나 語尾등이 다른 낱말에 轉用되는 것을 말한다. 가령 *δδοντιάω* (to have toothache), *σπληγνιάω* (to suffer in one's spleen), *λαρυγγιάω* (to have a sore throat) 등은 *iaw* 語尾를 가지고 있다. 이 낱말들에서 *iaw*는 어떤 질병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μόλυβδος* → *μολυβδιάω* (to be leaden-hued), *λίθος* → *λιθιάω* (to have the disease of stone) 등 造語가 이루어진다. 명백히 규칙이라고 이름 붙인 위의 3 규칙 이외에도 Bréal은 형태상은 없어진 屈折이 심리적으로 남는 현상, 誤認(False Perception), 類推, 新形態導入(new acquisition), 有用形態의 소멸 等을 들고 있다.

Breal은 의미변화의 종류를 의미의 狹義化, 의미의 擴張, メタ포(metaphor), 多義化, 抽象語의 具體化, 複合語, 連鎖語群(articulated groups) 등으로 구분하고 그 원인이나 과정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는 어떤 낱말의 뜻이 점차 制約이 가해져 狹義化되는 원인이 言語 자체가 現實과 정확한 對應을 이룰 수 없는데 있다고 보는 반면에 意味의 擴張은 言語外의 여건 즉 역사적 여건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았다. 連鎖語群이란 몇개의 낱말이 모여 이루어져서 각 낱말은 따로이 의미를 이루지 못하고 한 데 이를 이루는 *parce que*, *afin que*, *est-ce que*, *peut-être que*, *c'est que*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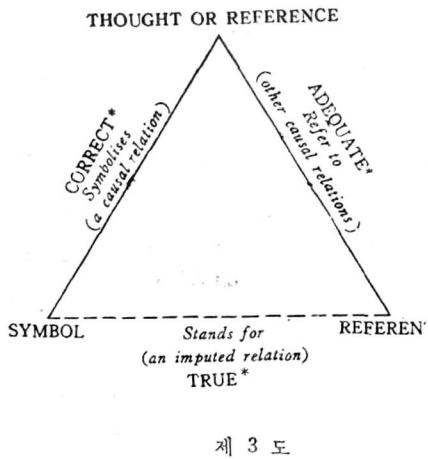
Breal과 그의 선구자 Reisig에 의하여 제창된 意味變化의 연구는 그 이후로도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意味研究의 한 중요분야로 확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3</sup>

**3.0** 記號의 指稱概念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입장과 대조적으로, 記號와 指稱概念, 指稱對象의 三者사이의 관계를 시간과 관계 없이 연구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것을 편의상 共時意味論이라 이름 붙인다면 공시의미론에는 (1) 記號(sign)와 指稱對象(denotatum)과의 사이에 指稱概念(designatum)을 개입시켜서 보는 입장과 (2) 指稱概念의介入을 부인

<sup>3</sup> Stephen Ullmann은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1962)의 제6장 (pp. 193-235)에서 意味變化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이 문제를 意味變化의 원인, 그 本質과 여건, 그 결과의 세가지 관점에서 잘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나누었다.

하고 記號와 指稱對象을 인간의 行爲로써 관계 지으려는 입장의 두 상반된 견해가 있다.

3.1 위의 指稱概念을 인정하는 첫째 견해의 대표적 예로는 I. A. Richards 와 C. K. Ogden 이 있다. Richards-Ogden 의 이른바 「意味의 三角圖」<sup>4</sup> 는 너무나 유명한 것으로서 symbol 과 referent 사이에 thought or reference 를 개입시켜서 보는 점이 제2도에 나타난 Morris 의 견해와 같다. 즉 제3도에서 symbol 은 thought 나 reference(Morris 의 designatum 해당)을 거쳐서만 referent(Morris 의 denotatum 해당)과 관련이 맺어진다. 다시 말하면 symbol 과 referent 는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간접적인 관계(an imputed relation) 만이 성립된다. 여기 三角圖에서 symbol 과



제 3 도

referent 사이의 邊이 點線으로 표시된 것은 그런 간접적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人間의 일상생활이나 학술(특히 철학, 심리학등), 예술등 모든 문화면에서 인간이 범하는 가장 빈번하고 근본적 오류는 이 三角圖를 완전한 三角으로 잘 못 보는데서 즉 다시 말하면 symbol 과 referent 가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보는 잘못에서 생겨난다.<sup>5</sup> Richards-Ogden 은 이러한 意味의 과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학술·문화 문제를 다루어야 비로소 오류가 없는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보면 意味論은 단순한 언어학적인 의의를 넘어서 인간생활 전체에 관연이 되는 것임을 다시 보여 주었다.

3.2 共時意味論의 둘째 입장은 指稱concept의 개입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Bloomfield 를 예로 들면 指稱concept을 부정하는 대신에 인간이 記號에 대한 반응의 형식으로써 指稱對象에 반응하는 행위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같은 행동주의적<sup>6</sup> 견해에 의하면 인간이 가진 생각, 개념, 映像, 느낌, 意志(thought, concept, image, feeling, act of will) 같은 것은 인간의 직접적 행위나, 신체내부에 발생하는 생리적 움직임의 통속적 명칭에 불과하다고 한다. 가령 “배가 고프다”, “머리가 아프다” 등의 말은 신체내부에 대규모의 변화가 있는 경우의 표시이며, 소규모의 근육운동이나 분비현상 같은 것은 흔히 어떤 이미지나 느낌이라고

<sup>4</sup> C. K. Ogden and I. A.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23, p.11.

<sup>5</sup> *Ibid.*, p.14ff.

<sup>6</sup> Bloomfield 자신은 behaviorism 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기 입장은 mechanistic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Language*, p.142). Fries 에 의하면 Bloomfield 는 behaviorism 이란 술어에 반대하여 자기의 견해에는 physicalism 이란 술어가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한다. Fries, p.59.

부르는 것이고, 무엇을 말로 생각할 수 있다는 현상은 타인에게는 안보이거나 발성기판의 움직임이라고 한다.<sup>7</sup>

그러나 Bloomfield 는 언어와 의미와의 관계를 위와 같이 心理主義에서 떠나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을 뿐 그의 理論을 어떤 方向으로나 구체화하여 전개하지 못했다. 언어 기호와 指稱對象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이기 까닭에 편의상 共時意味論이라고 불렸으나 Bloomfield 는 意味變化의 문제도 다루었다. 그러나 그의 意味變化에 대한 견해는 그의 행동주의적 (또는 그가 원한 술어로 기계주의적) 意味觀의 영향을 조금도 받은 흔적이 없고 다만 과거의 意味變化연구를 종합한 것에 불과하였다.<sup>8</sup>

지금까지 말한 意味論은, 제2도에 비추어 볼 때, 모두가 낱말과 그 指稱對象과의 對應關係에서만 의미를 관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Richards-Ogden, Bloomfield)을 語彙的 意味論이라 부른다면 歷史意味論(Bréal 등)도 時間이란 척도가 첨가되어 있기는 하나, 역시 낱말에 국한된 관찰이었다는 點에서 語彙의 意味論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4.0** 위에서 말한 記號와 指稱對象과의 관계를 중간에 개입하는 指稱概念의 有無에 상관없이 指稱관계로 볼 때, 이 指稱관계는 흔히 생각하듯이 單一한 것이 아니라 중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령 “book”이란 記號는 어느 한권의 책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책을 指稱한다. 또한 記號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도 표시되지 않으므로 가령 같은 記號 “John Smith”가 指稱하는 인물은 가령 1951년과 1961년에 각기 변모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언어의 제약에서 일어나는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학문에서 많은 오류에 빠지고 社會가 不健全하게 되는 것을 시정하려는 의미론적 방법을 一般意味論(General Semantics)이라 한다.

**4.1** 그 명칭을 짓고 또한 이 연구를 학문화한 Alfred Korzybski 는 예를 들어 數學, 物理學, 生物學, 心理學 등 대단히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검토를 시도한 결과, 科學이나 技能系분야와 哲學, 倫理, 政治等 분야에서 판이하게 다른 「評價」 태도를 발견했다. 그가 「評價한다」(evaluate) 함은 人間이 일상생활에, 그들 주변의 사건이나, 말, 기호등에 접하여 그들에 반응하고 그들에 대해 생각하며 느끼는 행위를 가리킨다. 今世紀에 들어 현저한 발전을 이룬 科學분야에서는 그 사고방식 (다시 말해 評價의 습성)에 非아리스토텔레스의 3개 전제가 밀바탕에 있음을 발견했다. 그 3개 전제란 言語와 現實과의 관계를 地圖와 地域에 비유하자면 (1) 지도는 地域 그 자체는 아니다 (즉 말은 그것이 나타내는 물건 그 자체는 아니다), (2) 지도는 한 地域을 모조리 다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말은 어떤 사물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지 않는다), (3) 이상적인 지도는 그 지도 자체의 지도를 대포해야 하며, 그 포함된 지도는 다시 그 지도의 지도의 지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意味에서 地圖란

<sup>7</sup> Bloomfield, pp.142-144.

<sup>8</sup> Bloomfield, pp.425-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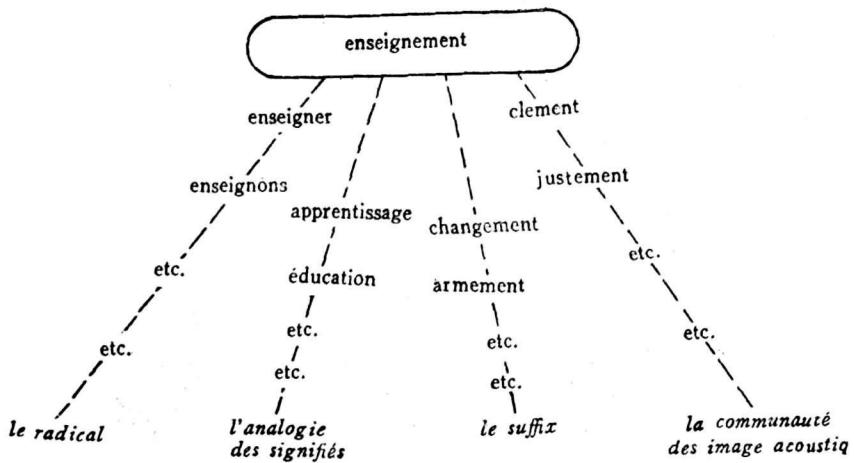
自己反影的이다 (즉 말에 대한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에 대한 말에 대한 말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전제에 입각한 評價습성은 마음에 융통성이 있고, 도그마가 없고 정서적 균형이 잡혀 과학적인 정신을 준다. 그와 반대로 완고한 評價습성이 그대로 살아 남아 있는 여러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가 습성화되어 있다. (1) 어떤 사물은 그 사물 자체이다 (가령 「돼지는 돼지다」), (2) 모든 것은 A 이거나 A 아닌 것이다 (「너는 우리편이거나 반대편이다. 중립이란 없다」), (3) 아무것도 A 입과 동시에 A 아닌 것일 수 없다 (「너는 紳士입과 동시에 非紳士일 수 없다」).

**4.2** 이처럼 완고하고 불전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評價습성에서 非아리스토텔레스의 評價습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Korzybski는 인간이 자신의 評價과정을 評價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제안했다. 규칙의 주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낱말은 여러 指稱대상을 가지므로 指數를 붙여야 한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모든 教授에게 동일한 反應을 보이므로 <教授<sub>1</sub>> <教授<sub>2</sub>>처럼 指數를 붙여 차이점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준다. (2) 어제의 金一根씨와 오늘의 金一根씨는 다르므로 <金一根 月요일> <金一根 土요일>처럼 日附를 붙임으로써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편견을 없애도록 하며 時間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응할 수 있게 한다. (3) 모든 진술에는 「等等」의 표시를 덧붙여서 地圖라는 것이 모든 地域을 남김 없이 표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實世界의 사물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진술해 버릴 수는 없는 것임을 기억케 한다. (4) 「고양이를 고양이라 부른다」던가 「개는 개다」 등에서 보는 「A 가 A 이다」는 진술에는 동일물을 나타내는 「이다」가 있으므로 이에 언제나 명심하여 말과 실지 사물과를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일상생활에 쓰는 말들은 혼이 非과학적이고 부정확한 것이므로 보다 더 정확한 代用語가 없는 경우에는 “마음” “주관적” “민족” 등과 같이 引用符號를 붙여 전적으로 신임할 수는 없는 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한다. (6) 언어는 사실상은 分離시킬 수 없는 사물을 言語의으로 분리해 놓는다. 가령 생물과 무생물을 동시에 다루는 분야는 “bio-chemistry”처럼 하이픈(–)으로 연결한 단어를 쓴다.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된 낱말들을 써서 어떤 사건들이 언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실지에는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표시해 둔다.<sup>9</sup>

이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一般意味論이란 言語의 제약을 인식하고 그 제약을 벗어나도록 노력함으로써, 언어를 통해 歪曲되어 비쳐오는 현실의 實態를 인간이 보다더 정확히 파악케 하여 社會를 보다 더 전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5.0** Ferdinand de Saussure는 한 낱말은 다른 낱말들과 interanimation 的 관계, 즉 상호 자극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가령 *enseignement*이란 낱말은 제4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enseignement*, *enseigner*, *enseignons*,……간에 語幹이란 공통요소가 있다. *enseign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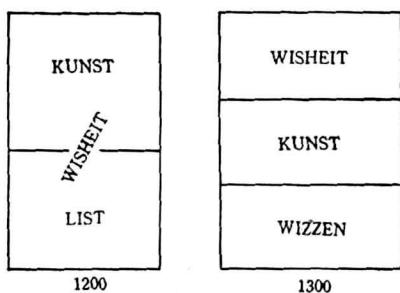
<sup>9</sup> Alfred Korzybski, *Science and Sanity*, 2nd edition. Lancaster, Pa.: Science Press, 1941.



제 4 도

apprentissage, éducation,……간에는 그 意味에 類似點이 있다. 또한 enseignement, changement, armement,……간에는 語尾가 공통요소로 있다. enseignement, justement의 어미間에는 청각映像의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공통요소를 가진 낱말들끼리는 심리적 聯想작용에 의한 밀접한 聯關係를 항상 가지게 된다고 Saussure는 말했다.<sup>10</sup> 이런 연합관계의 발견은 한 個別言語의 낱말들 사이에 잠재하는 어떤 의미적 構造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찰을 기반으로 그러한 意味構造를 구명하려는 시도를 構造意味論이라 부른다.

5. 1 Trier는 知識語彙(intellectual terms)의 연구를 통하여, 추상개념의 구조세계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Guiraud의 소개<sup>11</sup>에서 도표(제5도)를



제 5 도

빌리면 Middle High German 은 1200년경에는 Kunst, Wisheit, List 의 세 낱말을 중심으로 概念場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Kunst 는 영어의 art (예술), List 는 cunning, craft, trick 등의 뜻으로서 「技巧」, Wisheit 는 wisdom (지혜)로 각각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Kunst 는 貴族계급이나 宮中과 관련된 지식을 부르는 말이며 List 는 黨民과 관련되는 지식으로

서 醫學, 天文學이나 기타 여러 직업과 관계된 技能을 부르는 말로서 이 두 낱말은 그 당시

<sup>10</sup>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p. 173-175.

<sup>11</sup> Pierre Guirand, *La sémanti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5, pp.77-80.

의 封建제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Wisheit는 Kunst나 List의 한 代用語로도 쓰이고 종교적으로나 세속적 意味의 모든 지혜를 나타내는 통용어였다. 그 이후 100년이 지난 1300년에는 변화된 概念場을 볼 수 있다. 변용된 개념장은 Wisheit, Kunst, Wizzen의 세 낱말로 이루어진다. 1200년경의 비방적, 경멸적 암시를 가진 List가 없어지고 Wizzen이 나타나서 아무런 社會 계급적 의미가 없는 knowledge의 뜻으로 쓰이게 되고 살아 남은 Kunst는 현대적 의미의 art에 가까워졌다. Wisheit는 총괄적 의미는 없어지고 종교적 신비경험을 표시하는 말로 변했다. 이러한 개념장의 변화는 封建제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構造的 意味論의 언어학적 意義는 한 概念場안의 어떤 변화가 隣接한 여러 概念을 변모케 하며 그 반응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말도 변모한다는 사실에 있다. 言語는 각 個別言語마다 하나의 有機體를 이루어서, 각 부분과 要素는 전체 有機體안에서 어떤 위치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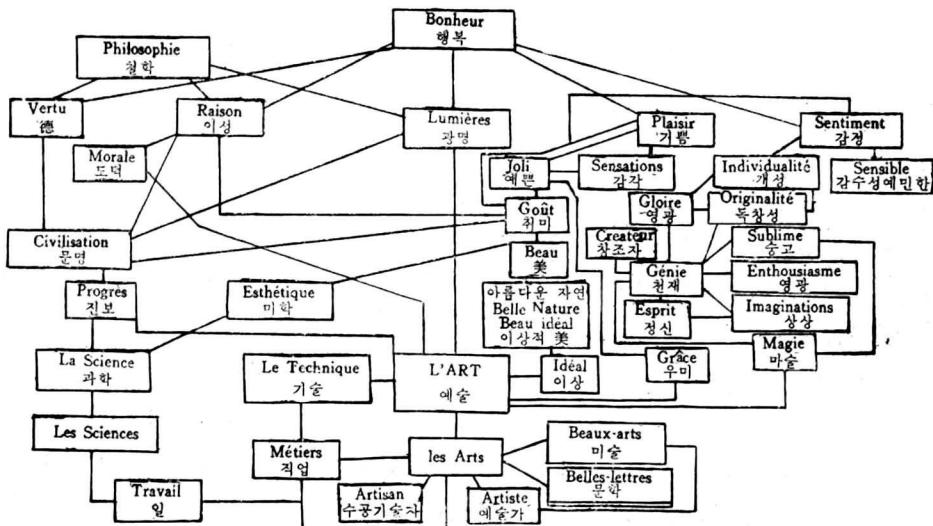
5.2 이처럼 사회적, 심리적 의미세계를 탐색하는 構造意味論을 통하여 어느 時代의 사회적 문화적 구조를 모색하는 노력은 G. Matoré의 *La Méthode en Lexicologie*(Paris: Didier, 1953)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Matoré는 학문의 한 분야를 다른 분야와 구별짓는 것은 그 학문의 연구대상뿐 아니라 관점의 차이도 포함된다고 하고, 그런 意味에서 보아서 語彙論은 語彙의 연구에서 출발하나, 언어적 자료를 검토하여 사회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사회학적 學問이라고 한다. (Mais, ce qui distingue une science d'une autre ce n'est pas seulement son object, c'est la diversité formelle, le point de vue. Celui de la lexicologie est particulier; c'est en partant de l'étude du vocabulaire que nous essaions d'expliquer une société. Aussi pourrons-nous définir la lexicologie comme une discipline sociologique utilisant le matériel linguistique que sont les mots.)<sup>12</sup> 그는 歷史를 언어적 世代로 구분하고 각 世代범위 안에서 이론과 靜的語彙論(lexicologie statique)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각 世代는 소위 概念場(le champ notionnel)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概念場에는 標證語(le mot-témoin)라는 것이 있다. 標證語란 어떤 특정 시기에 새로 생기는 여러가지 새 概念을 나타내는 말들인데, 標證語 중에 어떤 것은 그 概念場의 중심을 이루며 동일 개념장내의 다른 낱말들보다 意味的으로 上位에 있어서 그들을 지배한다. 이러한 중심적 낱말을 Matoré는 關鍵語(le mot-clé)라고 불렀다. 構造的 개념 자체는 Trier의 경우와 大差 없으므로 1765년頃의 “art”와 “technique”란 낱말을 중심으로 한 概念場의 圖示를 Matoré에서 빌려<sup>13</sup> 제 6 도에 예로 들고 더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위에 소개한 Trier나 Matoré의 構造意味論은 낱말과 낱말의 관계를 모색한 점에서 Morris의 syntaxics에 관련이 되는 점도 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다만 해석자(즉 인간)의 심리

<sup>12</sup> G. Matoré, *La méthode en lexicologie*, Paris: Didier, 1953, p.50.

<sup>13</sup> Ibid., p.102.

## LE CHAMP NOTIONNEL D'ART ET DE TECHNIQUE VERS 1765



제 6 도

적 연합관계에서만 본 점으로 볼 때, 즉 제2도에서  $designatum_1$  과  $designatum_2$  와의 사회심리적構造의 엉킴이란 관점에서만 그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으로 볼 때, 어휘적 의미론이라 할 수 있다. Matoré 자신도 「語彙論」(lexicologie)이라고 스스로 명칭을 달고 있다.

**6.0** 構造的 意味 모색의 다른 한 방법으로 成分分析(componential analysis)이 있다. 이 방법은 우선 文化的으로 관련 있는 語彙를 모으고 이 어휘들을 상호구분하는데 기여하는 意味成分semantic component)을 찾아내는 것이다.

**6.1** 이에 대하여는 孫昊玟 교수의 발표에서도 다시 논의될 것이나<sup>14</sup> 筆者が 成分分析을 우리 말 親族語에 적용해 본 것에서 간단히 意味成分의 예를 들어 본다.<sup>15</sup>

1. 아 버 지	$a + m$	10. 외 손 자	$a - f - m$
2. 이 머 니	$a + f$	11. 형	$m + m - m^+$
3. 조 부	$a + m + m$	12. 아 우	$m + m - m^-$
4. 외 조 부	$a + f + m$	13. 누 나	$m + m - f^+$
5. 조 모	$a + m + f$	14. 언 니	$f + m - f^+$
6. 외 조 모	$a + f + f$	15. 오 빠	$f + m - m^+$
7. 아 들	$a - m$	16. 삼 촌	$a + a + m - a \dots$ 등
8. 딸	$a - f$	17. 사 촌	$a + a + m - a - a \dots$ 등
9. 손 자	$a - m - m$		.....등등

<sup>14</sup> 孫昊玟『言語人類學의 方法』『語學研究』本號。

<sup>15</sup> 金韓坤 “Korean Kinship Terminology: A Semantic Analysis” 『語學研究』 제Ⅲ권 1호 (1967), pp.70-81. 이 글은 국어의 친족어 120餘個를 자료로 하여 意味成分分析을 시도한 것이다.

우선 여기 예를 든 것만 記號를 설명하면  $m$  은 <男性>,  $f$  는 <女性>,  $a$  는 <男女性 중 어느 하나>,  $+$ 는 그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보다 <한세대 상위>,  $-$ 는 그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보다 <한세대 下位>임을 각각 나타낸다. 위 1에서 17까지의 각 成分式에서 맨 처음의 문자는 <自己> (즉 해당 친족어를 사용하는 ego)를 나타내며 맨 끝의 문자는 그 ego에게 불리움을 받는 친척을 나타낸다. <가령 3. 조부  $a+m+m$ >은 「조부」라는 낱말은 사용하는 사람의 성에 상관 없이(즉  $a$ ), 그 보다 一世帶 위의 男性( $+m$ )을 거쳐 다시 一世帶 위의 男性( $+m$ )을 가리키는 말이란 뜻이다. 11에 있는  $+$ 는 <自己>보다 친척 (여기서  $+$ 가 붙은  $m$ )이 나이가 많음을 표시하며, 12에 있는  $-$ 는 그와 반대로 나이가 더 적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意味成分을 찾는 절차로서 1과 2를 비교해 본다. 우리는 1과 2를 변별하는데 기여하는 對照的 요소(contrasting elements)는  $m$  과  $f$ 임을 곧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과 7을 비교하면 여기에서 對照要素는  $+$ 와  $-$ 임을 알 수 있다. 11과 12에서는  $+$ 와  $-$ 가 대조요소이다. 16과 17에서는 性의 記號 ( $a$ ,  $m$ ,  $f$ )로써 나타내 있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世帶연결 표시 (즉  $+$ ,  $-$ )의 수효가 對照요소임을 볼 수 있다. 이처럼 構造音韻論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最少對立語(minimal pair)에서 對照의 기능을 가진 成分를 찾아 보면, 가령 친족어의 경우에는 첫째, 性으로서는 ① 自己의 性, ② 친족의 性, ③ 첫 中間연판자(first link)의 性이 변별적 의미성분이며, 다음 연령차이로서 ④ 중간 연판자(link)와 지칭 친척과의 연령차, ⑤ 自己와 지칭 친척과의 연령차가 의미성분이고, 마지막으로 ⑥ 自己와 지칭 친척과의 사이에 개입되는 연결표시 (즉  $+$ ~ $-$ )의 수효도 변별 의미성분임을 알 수 있다.

6.2 이는 마치도 音素가 모여 한 낱말의 音韻形態를 이루는 것과 같이 변별적 意味成分이 모여서 한 낱말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여서 意味論에 새로운 紀元을 열어 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듯한 방법이기는 하나, 그러면 모든 形態素의 音韻構造를 少數의 音素로 표시할 수 있드시 모든 形態素의 의미를 이러한 意味成分의 결합으로써 표시할 수 있게 될 것인가는 아직 요원한 얘기이다. 文化的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는 意味의 세계에서 다를 수 있을 만한 限定된 수효의 意味성분을 抽出하고 定義해 내는 일이 현재로서는 너무도 난관이기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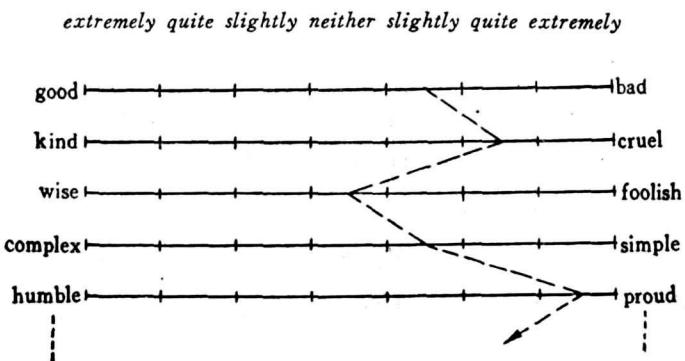
이러한 成分分析은 「構造的」이란 명사가 붙어 있기는 하나,<sup>16</sup> 意味成分의 결합관계로써 낱말의 의미를 구성하거나 구별하려는 시도이므로, Trier 나 Matoré 처럼 構造를 인간의 概念의 연관성에서 찾으려고 시도한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주로 미국의 文化人類學者들이 발전시킨 理論이다. 이 系列의 학자로는 Goodenough, Wallace, Atkins, Romney,

<sup>16</sup> 成分分析은 본래 構造的방법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Hammel처럼 變換理論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으며 Sydney Lamb 처럼 成層理論 (Stratification theory)의 입장에서 친족어를 밝히려는 시도도 있다.

Hammel, Kimball 등 많이 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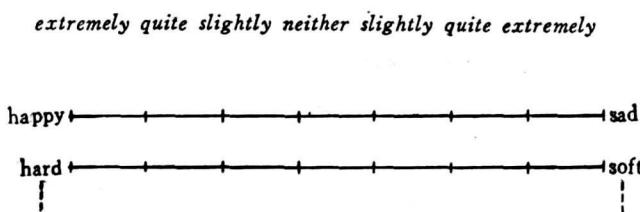
7.0 Osgood 등의 意味측정<sup>18</sup>은 그 방법이 실험심리학에 의한 數理的처리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歷史意味論, 構造意味論 등과 마찬가지로 지칭관계(reference)와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역시 語彙의 意味論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Weinreich가 지적하고 있듯<sup>19</sup> 그들의 연구는 지칭적 의미(referential meaning)가 아니라 情緒的의미(emotive meaning)의 측정이었다.

### KNIFE



제 7 도

### KNIFE



제 8 도

7.1 그들은 제7, 8도의 표제어(knife, father등)와 같이 어떤 概念을 나타내는 낱말들을 선정하고, 이 概念들이 good—bad, kind—cruel, wise—foolish, happy—sad, hard—soft 등 反意的 형용사의 쌍으로 이루어진 척도(scale)에서 어떤 位置에 있다고 느끼는가를 被實驗者로

<sup>17</sup> 이들의 主要論文은 末尾의 참고문헌에 소개한다.

<sup>18</sup> Charles E. Osgood, George J. Suci, and Percy H. Tannenbaum,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7,

<sup>19</sup> Uriel Weinreich, "Travels through Semantic Space," *Word* 14. 346-366.

하여금 선택케 하였다. 척도는 제7도처럼 7단계로 나누어서 extremely good, quite good, slightly good, neither good nor bad, slightly bad, quite bad, extremely bad로 하였다. 이 7 단계의 척도는 물론 그밖의 모든 反意的 形容사의 쌍, 가령 kind—cruel, wise—foolish, humble—proud, hard—soft, ……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하여 각 被實驗者가 주어진 概念에 대하여 척도상에서 택한 점을 제7도의 點線처럼 연결하면 각 개인이 해당 概念에 대해 내린 판단의 전체적 표시가 도표로 나타난다. 圖表上에 이렇게 연결한 線을 「意味의 프로필」(semantic profile)이라 이름 붙이는데, 이 意味의 프로필은 同一概念(낱말)에 대해 서도 개인에 따라 다르며, 또한同一人을 同一概念에 대해 실험하여도 시간간격을 두면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 여기서 개인간의 차이나, 동일인의 신간에 따른 변화를 프로필의 平均값間의 차이로 계산하면 프로필間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方法을 “semantic differential”(意味微分法)이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여러 척도에 의한 평가(rating)를 비교해 본 결과 어떤 척도들 간에는 상당한 상응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령 good—bad 척도에서 high 즉 좋은 쪽으로 평가된 概念은 beautiful—ugly, sweet—sour, kind—cruel, pleasant—unpleasant 등에서도 high로 나타났다(다른 예로 sharp—dull=fast—slow).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factor”란 이렇게 상응관계가 있는 평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어떤 要因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要因을 일컫는 말이다. 要因分析의 결과로 (1) evaluative factor (good—bad, kind—cruel, grateful—ungrateful, harmonious—dissonant, beautiful—ugly, successful—unsuccessful, true—false, positive—negative, reputable—disreputable, wise—foolish)에 큰 영향을 주는 要因)과 (2) potency factor (hard—soft, masculine—feminine, severe—lenient, strong—weak, tenacious—yielding, heavy—light, mature—youthful 등에 큰 영향을 주는 要因), 그리고 (3) oriented activity factor(active—passive, fast—slow, excitable—calm, rash—cautious, heretical—orthodox 등에 큰 영향을 주는 要因) 등 셋이 가장 결정적 要因임을 발견하고 각 概念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런 要因들을 座標로 삼은 意味空間(semantic space)에 놓으려는 시도가 Osgood等의 意味측정 방법이다. 위 세 要因이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要因으로는 (4) stability factor (sober—drunk, stable—changeable 등), (5) tautness factor (angular—rounded, straight—curved 등), (6) novelty factor (new—old, usual—unusual 등), (7) receptivity factor, (8) aggressiveness factor가 발견되었다.

7.2 이러한 Osgood等의 意味측정 방법은 모든 評價의 밑바탕이 되는 基準 要因을 찾아내고 그에 의한 意味空間을 구축하려 한 점이 아주 혁신적이며, 成分分析의 方法이 모든 단어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意味成分을 찾으려 시도한 점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意味측정의 대상이 낱말이 나타내는 概念들에 대한 情緒的 反應을 측정한 것이므로, 그런데다가 반을 둔 이른바 要因(factor)이 意味論의 本領이라 할 수 있는 指稱的 意味를 기술할 수

있는 것은 못될 듯하다. 바꾸어 말하면 Osgood 등은 語彙論의 意味를 다루기는 하면서도 언어학의 입장에서 볼때 語彙的 意味의 本領인 lexicography, 즉 referential meaning의 記述과는 다른 情緒的 效果(오히려 문학과 관련이 깊은)의 數理的 측정을 한 것이다. 또한 情緒的 意味의 측정에 그들의 방법이 아주 創意의이고 훌륭한 것이기는 하나, 하나는 20개 개념과 50개의 척도로써, 또 하나는 20개 개념과 76개 척도로써 행한 2개 실험의 결과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무수히 많은 영어단어를 意味空間 속에 位置 잡아 줄 수 있게까지 될 것인지 아득한 감이 있다.

7.3 여기까지에서 첫째, 意味를 記號와 그 指稱概念이나 指稱對象과의 관계面에서 역사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또는 社會의健全을 목표로 다루려는 관점들, 둘째로는 記號 상호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되 사회심리적 관련이나 情緒的 연관面에서 다루는 관점들을 모두 「語彙的 意味論」이란 태두리에 담아서 생각해 보았다.

8.0 그런데 위 둘째 관점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한 記號와 다른 記號가 가지는 관련을 心理的 聯關係 안에 담아서 보고, 文章內의 統辭構造면에서의 관련과는 유리시켜 생각한 점이다. 이런 後者의 관점, 즉 통사적 관련을 보는 syntactic semantics의 시도로서 이론과 Logical Syntax와 Transformational-generative Semantics가 있는데 前者は 哲學의 분야에 속하므로 筆者가 언어학도로서 관심을 가진 後者(變換生成意味論)만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8.1 Chomsky는 *Syntactic Structures*에서 形態的 統辭的 分析에서 발견되는 구조 및 요소와 특정 意味機能間에는 큰 相應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言語形態의 연구와 言語使用의 연구를 동시에 포함하는 一般言語理論에서는 이 相應관계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se counterexamples should not, however, blind us to the fact that there are striking correspondences between the structures and elements that are discovered in formal, grammatical analysis and specific semantic functions..... The fact that correspondences between formal and semantic features exist, however, cannot be ignored. These correspondences should be studied in some more general theory of language that will include a theory of linguistic form and a theory of the use of language as subparts.<sup>20)</sup>) 그는 또한 의미해석에 統辭構造가 부분적으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예로서 句成分構造에 있어서의 構造階層 (levels of phrase structure)가 문제되는 경우와 變換과정이 문제되는 경우를 들었다.<sup>21)</sup>

意味論과 統辭論의 밀접한 관련에 대한 Chomsky의 이러한 제안은 Katz와 Fodor의 變換文法的 意味論을 낳게 하였고<sup>22)</sup> 그들의 理論이 개정되어 Katz와 Fodor의 統合理論

<sup>20)</sup> Noam Chomsky,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1957, pp.101-102.

<sup>21)</sup> *Ibid*, Chapter 8 (pp. 8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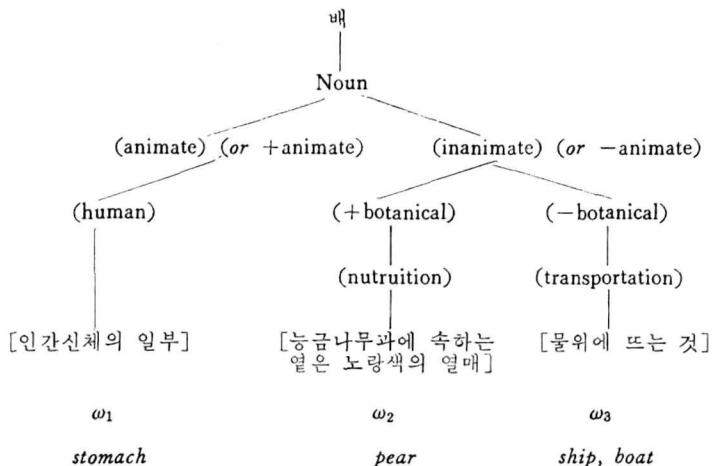
<sup>22)</sup> Jerrold J. Katz and Jerry A. Fodor, "The Structure of a Semantic Theory," *Language* 39 (1963), pp.170-210. Reprinted in Jerry A. Fodor and Jerrold J. Katz, eds., *The Structure of Language.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4, pp.479-518.

(integrated theory)으로 발전했는데, 이들은 統辭, 音韻, 意味의 셋중에서 統辭와 意味의 연합을 시도하였다.<sup>23</sup>

8.2 이들의 이론의 근본원리만을 살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문을 들어 본다.

1. 나는 배가 좋다. (ship, pear)
2. 나는 배를 먹었다. (pear)
3. 나는 배가 부르다. (stomach)
4. 나는 배를 탔다. (ship)

위 예문에서 2, 3, 4는 그 뜻이 분명한데 1은 모호하다. 2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과일인 배(pear) 한가지 뿐이며 3번에서 「부르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신체의 일부인 배(stomach) 뿐이다. 마찬가지로 4번에서 「타는데」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물위에 뜨는 배(ship)이다. 반면에 1번에서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이 교통수단인 배와 과일인 배의 두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배」라는 낱말에 관해서 語彙部(lexicon)에 제9도와 같은 사전의 표시를 하기로 해본다.



제 9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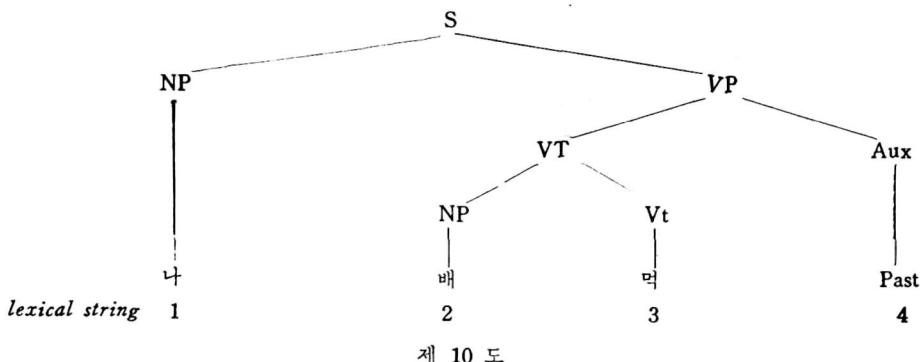
이와 같은 사전의 표시는 意味의 이해와 관계되는 네가지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고 Katz-Fodor는 말한다.<sup>24</sup> (1) 「배」라는 표제어의 품사를 표시하고 있다. (2) 이 표제어가 가지는 서로 다른 意味의 수효를 나타낸다. 제9도의 경우 그 뜻이 셋이다. 첫째 뜻은 「배」에서부터 Noun, (+animate), (human), [인간 신체의 일부]란 경로(path w<sub>1</sub>)를 통해 표시되고 (즉 영어 *stomach* 해당), 둘째 뜻은 「배」, Noun, (-animate), (+botanical), (nutruition), [농금나무과에 속하는 열은 노랑색의 열매]의 경로(w<sub>2</sub>)를 통해 표시되며(영어 *pear* 해당), 세째

<sup>23</sup> Jerrold J. Katz and Paul M. Postal, *An Integrated Theory of Linguistic Description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4.

<sup>24</sup> Katz and Fodor, *op. cit.*, p. 500.

뜻은 「배」 Noun, (-animate), (-botanical), (transportation), [물 위에 뜨는 것]의 경로( $\omega_3$ )를 통해 표시된다(영어 *ship* 또는 *boat*의 경우). (3) 이 사전은 체계적 의미자질(systematic semantic features)을 나타낸다. 체계적 의미자질이라 함은 이러한 意味資質의 결합관계가 어느 한 낱말이 가진 두 意味간의 구분이나, 한 낱말과 다른 낱말의 뜻을 구분하는데 변별적 기능을 있다고 생각하여 붙인 이름이다. 이런 意味資質을 어떤 절차에 의하여 발견 또는 설정할 수 있는가에는 문제점이 있으나 Katz-Fodor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이론이 없이 문법적인 관찰을 다소 참작했을 뿐이다. (4) 각기 구분되는 다른 의미만이 가진 특유한 의미자질을 나타낸다. 이것을 그들은 *distinguisher* 라 하여 체계적(systematic)인 것이 아니고, 즉 모든 의미에 두루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 의미에 특유한 자질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distinguisher* 라 하는 것을 체계적 의미자질(Katz-Fodor는 이것을 *semantic marker* 라 부름)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하여는 비판이 있었다. 즉 그 한계가 너무恣意의인 것어서 Katz-Fodor가 *distinguisher*로 표시한 것도 더 분석하면 *semantic marker* 化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sup>25</sup> 그러나 문제점은 Katz-Fodor의 *distinguisher*가 체계적 의미자질로 다 분석되어 없어지는데 있다기보다는, 語素가 각기 하나씩의 *distinguisher*를 가지는 것보다는 *distinguisher* 없이 systematic semantic markers 만으로써 모든 語素가 기술될 수 있으면 더 이상적이겠는데, 과연 그처럼 “systematic”한 의미자질들을組合함으로써 한 개별언어의 모든 語素를 다 나타낼 수 있게, 적당한 수효로 설정할 수 있겠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8•3 사전(표제어 기술)에 대하여는 이만큼 해 두고 예문 2에서 「나」에 붙은 「는」은 편의상 무시하고 대략의 구표지(句標識 phrase-marker or P-marker)를 그리면 제10도와 같다.



이러한 句標識가 지배하는 構文素(formatives, 제10도에서 「나」「배」「먹」「past」 등)에 제9도의 「배」에 대한 사전표시의 기술을 대치해 넣고, 먼저 NP 와 Vt 를 의미적으로 결합하여 VT 의 뜻을 밝히면 제9도의  $\omega_2$  경로만이 Vt 「먹」과 결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 결합의

<sup>25</sup> Dwight Bolinger, "The Atomization of Meaning," *Language* 41.4(1965), pp.555-573.

所產(output), 즉 VT의 의미와 Aux를 결합하여 VP의 뜻이 밝혀진다. 마지막으로 S에 차배되는 NP와 VP의 所產을 결합하면 이 문장 전체의 뜻이 해석된다.

이러한 결합(amalgamation)을 위한 규칙을 投影規則(projection rule)이라 하는데 세밀한 규칙의 예시는 피하고 그 적용원리만을 예문 2와 1을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예문 2의 경우에 「먹」이란 Vt는 +nutrition이란 의미자질을 가진 NP만을 목적어로 택한다는 제약을 규칙화할 수 있으므로 제9도 「배」의  $\omega_2$ 하고만 결합될 수 있는 반면, 예문 1의 「좋」라는 동사류(즉 서술어로 쓰인 형용사)에는 그런 제약이 없으므로 제9도의  $\omega_2$ 와  $\omega_3$ 를 다 택할 수 있어 그 뜻이 두가지가 나오는 것이다(모호성이 있는 경우).

여기 소개한 Katz-Fodor, Katz-Postal 이후로 變換生成 문법이론에 의거한 意味論은 몇 分派로 갈렸으며 이것이 變換生成의 일반이론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지면관계로 앞으로의 기회로 미룬다.

**9.0** 이상을 요약하면 意味論은 크게 나누어 두 흐름이 있는데 그 하나는 記號와 指稱概念 또는 指稱對象과의 관계를 구명하는 관점과, 둘째로 記號 상호간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구명하는 관점이 있다. 前者에서는 指稱概念을 記號와 指稱對象과의 사이에 개입시켜서 보는 견해와, 指稱concept의 개입을 부인하고 記號에 대한 인간의 반응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견해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 記號 상호간의 관련에 대한 연구인 後者도 하나는 한 문장 안에서의 통사적 상호연관을 밝히려는 견해, 다른 하나는 문장과는 상관 없이 유리된, 그러나 문화적으로나 인간심리나 사회적 개념면에서 상호간에 얹힌 낱말들 사이에 있는 構造的 얹음을 밝혀 보려는 시도가 있다. 또한 정서적 의미나 社會의 健全化를 목표로 하는 意味論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이러한 意味論의 分派와 여러가지 다른 對象과 方法중 그 어느것이 가장 훌륭한 것인가란 질문을 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對象이나 方法論의 선택은 意味論을 하는 目的에 따라 어느 정도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각 방법론의 장단점을 가려 상호보충하여 이용하면 意味論의 발전에 도움이 될 줄 안다.

## REFERENCES

1. Bloomfield, Leonard.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33.
2. Bolinger, Dwight, "The Atomization of Meaning," *Language* 41.4(1965), pp.555-573.
3. Bréal, Michel. *Essai de Sémantique* (1892). Translated by Henry Cust as *Semantics: Studies in the Science of Meaning*,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64.
4. Burling, Robbins, "Burmese Kinship Terminology," in 9. Hammel, pp.106-117.
5. Chomsky, Noam.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1957.
6. Fries, Charles C., "Meaning and Linguistic Analysis," *Language* 30.1(1954), pp.57-67.
7. Goodenough, Ward W., "Componential Analysis and the Study of Meaning," *Language* 32(1956), pp.195-216.
8. Guiraud, Pierre. *La Sémant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5.
9. Hammel, E. A., ed. *Formal Semantic Analysis*, Special Publication of *American Anthropologist* 67.5, Part 2(1965).
10. ———,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Comanche Kinship Terminology," in 9. Hammel, pp.65-105.
11. ———, "An Algorithm for Crow-Omaha Solutions," in 9. Hammel, pp.118-126.
12. Katz, Jerrold J. and Jerry A. Fodor, "The Structure of a Semantic Theory," *Language* 39(1963), pp.170-210. Reprinted in Jerry A. Fodor and Jerrold J. Katz, eds., *The Structure of Language: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4, pp.479-518.
13. Katz, Jerrold J. and Paul M. Postal. *An Integrated Theory of Linguistic Description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4.
14. Kim, Han-Kon(金韓坤), "Korean Kinship Terminology: A Semantic Analysis," *Language Research* III.1(1967),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pp. 70-81.
15. Korzybski, Alfred. *Science and Sanity*, 2nd ed. Lancaster, Pa: Science Press, 1941.
16. Lamb, Sydney, "Kinship Terminology and Linguistic Structure," in 9. Hammel, pp.37-64.
17. Lounsbury, "A Semantic Analysis of the Pawnee Kinship Usage," *Language* 32, pp.158-194.
18. Matoré, Georges. *La méthode en lexicologie: Domaine Francais*. Paris: Marcel Didier, 1953.
19. Morris, Charles W.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Sign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Vol. 1, No.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8.

20. Ogden, C. K. and I. A.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23.
21. Osgood, Charles E., George J. Suci, and Percy H. Tannenbaum,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7.
22. Romney, A. Kimball. "Kalmuk Mongol and the Classification of Lineal Kinship Terminologies," in 9. Hammel, pp.127-141.
23. de Saussure, Ferdinand.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15.
24. Ullmann, Stephen.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London: Basil Blacawell and Mott, 1962.
25. Wallace, Anthony F. C., "The Problem of the Psychological Validity of Componential Analyses," in 9. Hammel, pp.229-248.
26. Wallace, Anthoney F. C. and John Atkins, "The Meaning of Kinship Terms," *American Anthropologist* 62(1960), pp.58-80.
27. Weinreich, Uriel, "Travels through Semantic Space," *Word* 14. 346-366.